

05 영천 보현산권역 개발

천문대 마을에서 사람이 놀게 만들어라

사업 목적

농촌 마을 경관 개선, 생활 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 기반 확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 주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 사회 유지를 도 모한다.

사업지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외 3개리
총 사업비	215억원(2006년 화북면 보현산권역 56억원, 2007년 신녕면 거점면 개발 70억원, 2008년 자양면 은하수권역 44억원, 2009년 북안면 돌함매권역 45억원, 영양산비위권역 55억원)
주요 사업	문화 복지 시설(횡계리, 정각2리, 하송〈하·상〉마을회관) 3개소 설립
경관 시설	(횡계리 주민센터, 견암마을 소나무쉼터 등) 6개소 설립 농촌관광시설(마을종합안내판 등) 10개소 설립,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시행	경상북도 영천시
사업 기간	2007~2014년

❁ 의미

대구와 포항 사이에서 정체성을 완성하다



영천은 대구와 포항 사이에 위치해 사람들의 왕래나 방문지로서의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인구도 2000년대 초반 11만명에서 최근에는 10만명대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영천을 전국에 알린 것은 '천문대'다. 영천시 북쪽에 자리한 보현산은 우리나라에서 별을 관측하는 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96년에 세워진 보현산천문대 덕분에 어



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보현산이 각인되면서 영천시도 함께 알려지게 됐다. 망원경이 우리나라 최대 크기인 1.8m짜리여서 더 유명해졌다.

천문대가 들어서자 보현산 아랫마을인 정각리에는 ‘천문대식당’ ‘천문대고시원’ 같은 ‘천문대’란 단어가 들어간 편의 시설이 잇달아 생기면서 주변 마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3년에 ‘아름마을 사업’으로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마을 주민들이 보현산 중심 개발에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사업이 확장된 점이다.

2004년에 제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열렸다. 천문대가 위치한 곳이어서 별빛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강조되어 첫 회부터 축제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별빛축제가 선보였지만 보현산이 원조로 자리매김했다.

2005년에는 법화리·정각리 등 보현산권역 주민 700여명이 자체 발전 계획을 세워 농림수산물부에 제출했다.

드디어 2006년부터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했다. 영천시는 보현산권역뿐만 아

나라 은하수권역, 돌할매권역, 신녕권역에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농림수산물 품부는 주민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고 보현산권역에 54억원을 지원했다.

이 자금으로 보현산천문대 아랫마을인 정각리에 2010년 초 별빛문화센터를 지어 개관했다. 별빛문화센터는 숙박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는 다용도 건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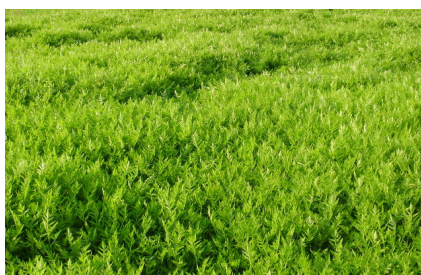
별빛축제는 영천시에 매년 1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또한 대구와 포항 사이에서 영천시의 정체성을 부각시킨 이벤트이기도 하다.

지금도 보현산천문대 쪽으로는 일몰 후에는 자동차가 가지 못한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별자리 관측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주민들 스스로 원칙을 만들고 지키는 정신이 보현산권역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 또 다른 효과

미나리로 별빛 관광객 유혹



천문대까지 온 관광객들은 보현산 아래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나 특산품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영천은 사과가 유명하다. 한때 보현산 일대 지역 주민의 90%가 사과를 재배했을 정도다. 그러나 사과는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다.

2004년에 정각리 별빛마을의 한 주민이 미나리 재배에 성공하면서 시에서 적극 지원에 나섰다. 2008년 초에 드디어 암반수로 재배한 '별빛미나리'가 출하되면서 마침내 미나리가 보현산의 특산품으로 등장했다. 맛을 본 사람들의 칭송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점차 확장됐다. 초창기엔 13개 농가가 3ha의 미나리재배단지에서 미나리를 생산했지만, 최근에는 6만3000㎡(1만9000여평)의 미나리재배단지를 확보해 영덕 하면 대게가 떠오르는 것처럼 영천 하면 미나리가 떠오르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나리는 3.3㎡당 4만원의 고수익을 올려주는 효자 상품이다. 과거에는 보현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제외하곤 마땅한 특산물이었다 없었지만 미나리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품목으로 떠올랐다.

피터 드러커의
CAIRA 방식에 의한
성과 진단

테마 차별성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영천 브랜드 살리다

미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곳,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곳,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어느 날부터 들리지 않는 곳’. 농촌 지역이 당면한 현실이다. 최근 10여년 동안 영천시는 인구가 18만여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업의 미션은 영천을 전국 최고의 별빛여행지, 사과의 고장으로 부각시켜 영천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모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고객

맑은 하늘과 별을 찾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 청정한 환경에서 휴양과 캠핑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의 고객이다. 그리고 영천시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혜택을 받는 최종 고객이다.

성과

이 사업을 통해 가장 달라지는 것은 바로 대상지의 경관이다. 국내 최대 구경의 천문대가 위치한 보현산권역에는 천문과학관·별빛문화센터가 세워진 데 이어 은하수권역에는 야생화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마을회관, 마을쉼터, 마을광장, 돌담, 별빛문화거리 등이 이 사업을 통해 전혀 새로운 느낌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피터 드러커의 CAIRA 방식에 의한 사업 성과 진단]

영천 보현산권역 개발 CAIRA 평점 분포

44점

Concentration

보현산천문대 '별' 테마의 강점 적극 활용

Abandon

원활한
토지 매입 위한
일부 후보지 포기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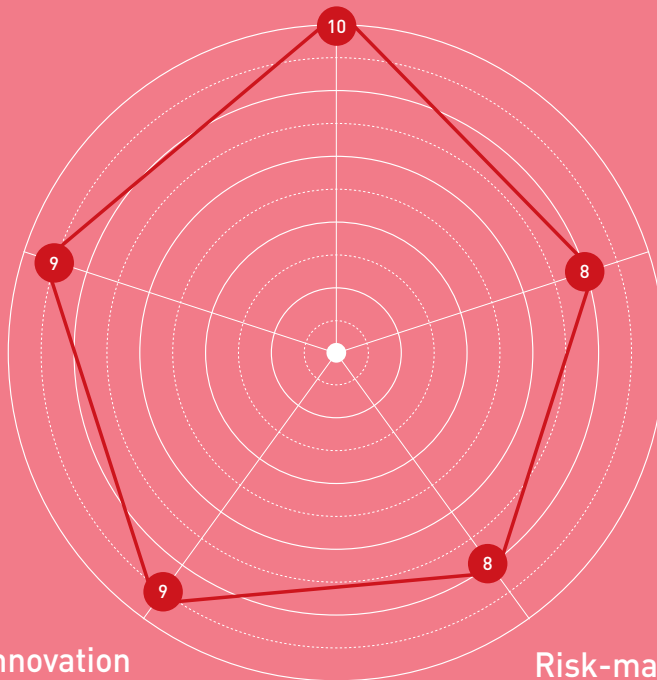
외부 전문가의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Innovation

영천 미나리 개발 등 주민의
자발적 혁신 상품 개발

Risk-management

토지 매입 과정의 어려움을
주민 설득으로 해결



C·A · 집중과 포기 CAIRA · CONCENTRATION & ABANDON

국내 최대 '천문대' 부각

1996년에 완성된 영천 보현산천문대는 국내 최대 구경인 1.8m의 반사망원경과 태양 플레어 망원경이 설치되어 국내 천문 관측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 점을 최대한 살려 별빛 관광 테마 개발에 나선 영천시는 매년 4월말에 별빛축제를 개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현산권역의 산악 천문 환경과 인근에 위치한 은하수권역의 수변 자연 환경은 독특한 강점이 있다. 이들 강점을 살리기 위해 별빛축제를 두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한편, 공동체험프로그램(보현산권역 : 사과따기 · 감따기 · 고구마캐기 · 등산, 은하수권역 : 천연 염색하기 · 천연방향제 만들기 등)도 개발했다.

· 혁신 CAIRA ·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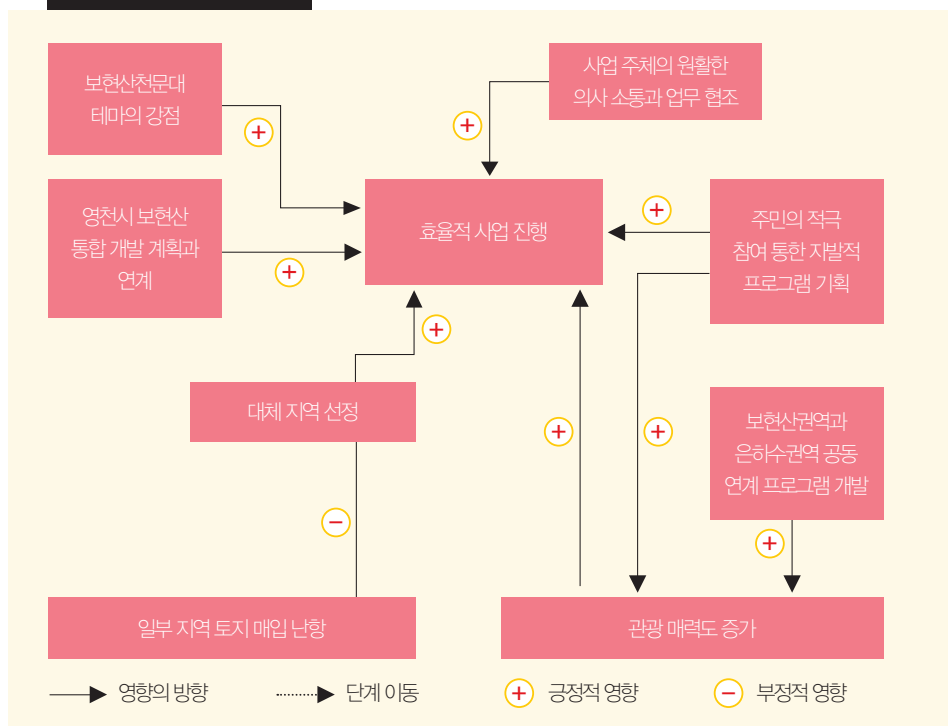
미나리 재배로 '+α' 확보

모든 프로그램은 영천이 강점을 지닌 천문대 환경과 먹을거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강점에만 의존했다면 혁신성이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정각리 별빛마을 주민들이 미나리 재배에 성공한 것은 획기적이었다. 그 전까지 보현산 아래는 사과 일색이었다. 사과 하면 대구 영천 지역이 유명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미나리는 흔치 않다. 보현산 자락의 맑은 지하 암반수로 재배한 '별빛미나리'를 맛본 사람들을 통해 영천 미나리가 입소문이 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영천 미나리라는 브랜드 개발이야말로 자발적인 주민 혁신의 귀감으로 꼽힐 만하다.

땅값 문제, 대체 사업지로 해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별빛문화센터 건립지의 땅값이 올라 토지 소유주 설득이 어려웠다. 오랜 논의 끝에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대체 사업지를 확보해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영천시가 이 사업에 소극적인 보현담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참여를 유도했다.

인과지도 요소



국내 최대의 천체망원경을 갖춘 보현산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만한 매력이 충분하다. 이 점을 적절히 활용한 게 주효했다. 별과 자연이란 테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영천시의 보현산 통합 개발 계획으로 이 사업은 추진력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내놓아 사업은 더욱더 힘을 얻었고, 영천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영천시의 사업에 적극 호응하면서 토지 매입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일부 지역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대체 지역을 선정해 슬기롭게 해결했다. 주민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주체인 권역추진위원회, 영천시 공무원,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외부 전문가들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열정도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인접한 보현산권역과 은하수권역의 이점을 살린 공동프로그램도 고객 유치에 일조했다.

